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李鍾容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田根澤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法人 <우편번호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3면
- 수련회 행사화보 및 주재발표요지 4, 5면
- 약초유래를 찾아서 6면
- 침수약용작물 관리요령 7면

관리규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생산자 판매 관행 인정



◇ 지난달 2~3일 열린 제1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재배회원들이 우리생약살리기를 다짐 (관련기사 3, 4, 5면).

생산자단체가 생산 가공한 한약재도 효능 표시 없으면 자유롭게 판매토록

농민이 직접 재배채취한 농산물(한약재)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단 품질상태 등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한약판매업자나 의약품 제조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

집중응호우

약용작물 피해심각

여름을 두고 쏟아진 폭우로 인해 2달여 수확기를 앞둔 약초밭이 침수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지황을 심었는데 지황밭 4천평이 비에 쓸려 농사를 망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집중호우가 연간 강수량의 약 절반을 불과 3~4일 사이에 한꺼번에 퍼붓는 것이라서 갈수록 위험을 점할 만하다.

충남 청양의 조병철씨는 "이번 폭우로 인해 구기자, 맥문동밭 수십만평이 침수됐다"며 "따라서 생산량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밀수 황기 폐기 처분하라”

농민들 관계부처에 진정

세관에서 압수된 밀수품 70t의 처리가 개입된 채본원 살신의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농민들이 관계부처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공매처분된 황기 70t은 결국 그 뒤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유통을 할만한 한데 이용 해 「황기」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는 추적이 단 무한 기부에 생약재배 농민들은 양질의 밀수품을 전량 폐기 처분하라는 진정과 함께 생약재배를 벌이고 있다.

이 많은 수입을 받고 있는 밀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수입품과 국내산의 절반가에도 못 미치는 단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국내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한약재로 판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회신내용에서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에게 의약품(규격품)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국산 한약재가 신상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약품 유통로 많은 소비되고 있는 현실에서 효능·효과 등을 표시하지 않고 농산물로만 판매한다는 규정은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관리규정이 안고 있는 상당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진열 판매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다름없으며 앞으로의 판매행위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산 한약재 무상지원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회장 이종영)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무상지원 행사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황기 단량 등 한약재 4백kg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런데 생약재가 기준 약재는 황기 50kg, 당귀 50kg, 자약 50kg, 향부자 1백kg, 천궁 50kg, 구기자 50kg, 산약 50kg이며, 금으로 환산하면 약 3백여만원 상당이다.

제1회 건강강좌 개최 안내

금번 저희 협회에서는 우리생약살리기 일환으로 국산한약재와 수입산의 구별법,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건강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소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일 시 : 9월15일 오후 2시30분 (3시간)
장 소 : 동대문구 구민회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967-8133)으로 연락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